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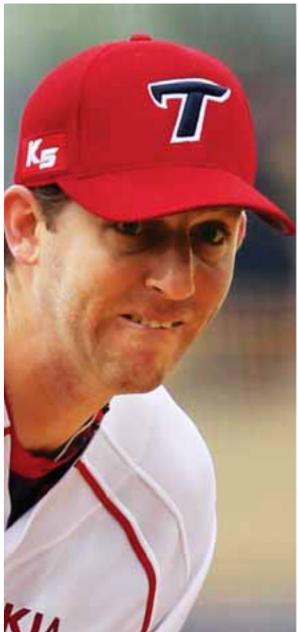
윤석민



양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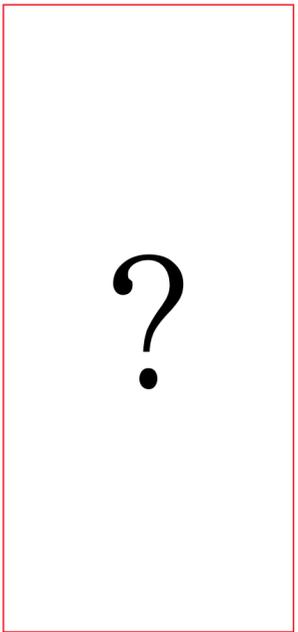
노에시 헤터



지크 스프루일



임준혁



6선발·집단 마무리?...KIA, 마운드 묘수 찾아라

선 발 임준혁 5선발 유력 속 김윤동 시험대...김 감독 “혹서기 등 감안 고민 중”

마무리 심동섭 ‘제구’ 최영필·김광수 ‘힘’ 부족...팔꿈치 통증 한승혁 역할 못해

KIA 타이거즈가 남은 시범경기를 통해서 마운드 조각을 맞춰간다. 6선발과 집단 마무리도 마운드 퍼즐의 한 조각이다.

2016시즌을 앞둔 KIA의 가장 큰 강점은 선발이다. 최대 약점은 마무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발진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고, 마무리는 감독도 모른다.

선발진은 이미 갖춰진 상태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민의 선발 복귀 속에 양현중, 헤터, 지크 4명의

자리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선발 구성에서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김윤동이다. 지난해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선발진을 지키며 9승을 수확한 임준혁이 5선발의 유력한 후보. 시범경기 스타트도 잘 끊었지만 김윤동도 5선발 후보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

5선발 경쟁이 6선발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강점인 선발진의 힘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선발에게 긴 이닝을 부탁하

면서, 불안한 뒷심을 선발의 힘으로 만회하겠다는 계산도 6선발을 생각하게 하는 요소다. 하지만 당장 6선발 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측 불허의 날씨와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김윤동의 실력이 고민거리다. 김윤동은 선발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부족하다. 시범경기 첫 번째 등판에서 85개의 공으로 3.2이닝을 소화했던 김윤동은 두 번째 등판도 4회에서 멈췄다. 투구수는

104개에 이르렀다. 야수진에서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운 투구수다.

김기태 감독은 6선발 가능성에 대해 “날씨 등 변수가 있어서 고민은 해봐야 한다. 혹서기 힘이 떨어질 때는 생각해볼 수 있다. 5명으로 144경기를 다 풀어갈 수 있는냐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마무리로 눈길을 돌리면 마땅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은 있다. 좌완 심동섭, 우완 강속구파 한승혁, 베테랑 최영필·김광수가 있다. 스프링 캠프에서의 결과물을 보면 한승혁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경험과 좌완이라는 장점을 가진 심동섭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최영필과 김광수는 노하우라는 큰 자산이 있지만 아직 완벽한 페이스는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표하는 장점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마무리라는 타이틀에 비해 젊은 투수들은 제구가 부족하고 베테랑들은 힘이 부족하다. 여기에 수술 이력이 있는 한승혁은 고질적인 팔꿈치 통증을 안고 가야 하는 상태다. 한승혁은 팔꿈치가 좋지 않아 시범경기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합평 연습경기에서 실전 피칭은 했지만 당분간 재활군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마무리에 대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집단 마무리가 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발진이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면

마무리 후보군들이 돌아가면서 남은 이닝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굳이 마무리를 정해놓지 않고 상대팀과 경기 상황, 투수 컨디션 등을 고려해 최상의 투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김기태 감독은 “머릿속에 정해 놓은 게 없다. 나도 마무리가 궁금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려해야 한다”고 마무리 투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선발진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면 격일제로 뒤에 투수들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KIA가 다양한 구상으로 마운드 답을 찾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 3이닝 무실점...김원섭 싹쓸이 2루타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NC에 6-5 역전승

KIA 타이거즈가 '난적'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두 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KIA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시범경기에서 6-5 재역전승을 기록했다. 선발 김윤동이 만루포에 흔들렸지만 베테랑 김원섭의 싹쓸이 2루타와 오준혁의 한방이 있었다.

5선발 후보 김윤동에게는 또 '마의 4회'가 됐다. LG와의 첫 등판에서도 설정해두었던 85개의 투구수에 걸려 3.2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던 김윤동은 이날 경기에서도 풀카운트 승부를 남발하면서 3회까지 67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1-0으로 앞선 4회초에도 선두타자 박석민과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좌전안타를 허용했다. 손시헌의 중전안타, 김태군의 내야안타도 이어졌다. 실상가상 유격수 김주형의 송구실책이 겹치면서 1-1이 됐다. 김윤동은 9번 김중호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며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볼넷에 이어 이종욱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만루포를 허용했다. 4회까지 기록된 투구수는 104개. 김윤동의 성적은 4이닝 6피홈런(1피홈런) 4사사구 2탈삼진 5실점이었다.

반면 NC 선발 헤커는 2회 2루수 송구 실책이 범미가 돼 1점을 주기는 했지만

60개의 공으로 4회를 책임지면서 선발싸움에서 완승을 거뒀다.

승부는 불펜에서 갈렸다. 김윤동에 이어 5회 마운드에 오른 한기주가 1피안타 1사사구 3탈삼진으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반면 5회말 NC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이태양이 볼넷 두 개와 사사구 2사 만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베테랑 김원섭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앞선 두 타석에서 좌익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물러났던 김원섭은 바뀐 투수 좌완 구창모와의 승부에서도 투넷째까지 물렸다. 그러나 8구까지 승부를 끌고 간 김원섭은 우측 선상으로 공을 보냈고, 그사이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았다. 오준혁의 2루타까지 이어지면서 승부는 5-5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기주에 이어 마운드를 물려받은 배형찬이 8회초를 막아낸 뒤, 8회말 재역전을 완성하는 홈런이 터졌다. 선두타자로 나온 오준혁이 김진성의 직구를 강타해 우측 담장 넘어가는 우월 솔로포를 장식했다. 승기를 가져오는 역전 홈런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무리 후보' 심동섭이 9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경기는 6-5, KIA의 승리로 끝났다.

좋은 피칭을 선보인 한기주는 “밸런스 위주로 피칭을 했는데 괜찮았다. 앞선 등판에서 추위 때문에 못 던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가 못 던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이닝을 늘려가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6시즌 개막전에서 만나야 하는 난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KIA는 16일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워 연습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

오승환, 美서도 '박병호 킬러'

시범경기서 삼진으로 돌려 세워

한국프로야구가 낳은 '최고 불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홈런왕'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미국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삼진을 잡은 오승환의 판정승이었다. 하지만 승부 자체만으로 한국 야구 팬에게 큰 즐거움을 안겼다.

오승환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1-2로 뒤진 6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오승환은 첫 상대 타자 트레버 플루프와 풀 카운트 접전을 펼치다 특유의 돌직구로 2루수 뜬공 처리했다. 케니스 바르가스도 직구를 던져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이어 타석에는 이날 5번타자 1루수로 선

발 출전한 박병호가 들어섰다. 오승환은 박병호의 모습을 보면서 씩 웃었다. 박병호도 빅리그 무대에서 만난 한국인 선배를 향해 '눈인사'를 했다.

승부에 돌입하자 둘은 진지해졌다. 초구 직구로 스트라이크 존을 받은 오승환은 2-3구째 볼을 던졌다. 오승환은 4구째 직구로 헛스윙을 유도한 뒤 시속 134km짜리 스피리터로 다시 헛스윙을 끌어내 삼진을 잡았다. 오승환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4번째 등판에서 기록한 첫 삼진이었다.

오승환은 한국프로야구에서 박병호에게 14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으로 압도했던 기쁜 좋은 기억을 미국 무대에서도 이어갔다. 오승환은 7회 마운드를 에스핀 고퍼에게 넘겼다. 이날 성적은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1삼진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17일만에 피칭 재개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7일 만에 불펜피칭을 재개했다.

류현진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벌백센터 마운드에 올라 공 20개를 던졌다.

MLB닷컴은 “왼 어깨 수술 후 신중하게 재활 중인 류현진이 다시 마운드에 섰다”면서 “구속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무난한 투구였다”고 전했다.

류현진이 불펜 피칭을 한 건 2월 27일 이후 17일 만이다.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2월 18일과 27일 두 차례 불펜 피칭을 소화하고 변화구도 시험했다. 28일과 29일에는 가벼운 캐치볼을 했다. 손조롭게 재활을 소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세 번째 불

펜 피칭을 앞두고 류현진은 어깨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류현진은 2월 29일 캐치볼을 한 뒤 공을 잡지 않았다. 류현진을 향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는 순간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섰다.

류현진은 불펜피칭 후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꽤 오랜만에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졌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다”며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재활하겠다. 이제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불펜피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재활을 늦출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현진과 다저스는 ‘5월 중순 메이저리그 마운드 복귀’를 목표로 정했다.

/연합뉴스